

형용사 중첩의 '-디-'에 대하여*

송 정 근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1. 서론

한국어의 일부 형용사 중첩에서 분석되는 '-디-'는 그 문법적 지위나 중첩에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가 완전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는 형용사 중첩과 관련된 '-디-'의 형태론적, 의미론적 기능을 검토하고, 중첩 과정에서 '-디-'의 기능과 정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의 형태, 의미론적 기능은 전통적인 분석 방식에 따라 형용사 중첩에서 확인되는 유사한 성분들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할 것이고, 범언어적으로 연구된 다양한 중첩의 양상에서 '-디-'와

* 이 논문은 2011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2011년 4월 23일 한글학회 대전지회 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주제어: 형용사 중첩, 형태론적 구성, 강한 정도성, 연결 형태, 운율 겹침, 음절수, 어기, 중첩소, 모음 교체
adjective reduplication, morphological construction, intensive sensorial scale, linker morph, melodic overwriting, syllable count, base, reduplicant, vowel change

유사한 경우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중첩 과정에서 ‘-디-’의 정체는 무엇인지 밝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형용사 중첩과 관련된 ‘-디-’의 분포와 기본적인 특징을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2장), 형용사 중첩의 다른 유형인 ‘짹짹하다, 길쭉길쭉하다’ 등에서 분석되는 ‘-르-, -쭉’ 등과 ‘-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형태론적 차원과 의미론적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다(3장). 그리고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중첩 현상 가운데 연결 형태(linker morph)와 운율 겹침(melodic overwriting) 현상을 살펴보고, 한국어의 ‘-디-’가 어떤 유형의 중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중첩 과정에서 ‘-디-’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4장).

2. ‘-디-’의 분포와 문법적 지위

한국어 형용사 반복구성(이하 중첩)에서 분석되는 ‘-디-’에 관해서는 기존에 그 분포와 문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디-’의 분포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1) 가. 높디높다, 크디크다, 붉디붉다, 검디검다
나. 쓰디쓰다, 다디달다, 시디시다
다. 조용하디조용하다, 시끄럽디시끄럽다
라. 차디차다, 춥디춥다
- (2) 가. 좋디좋다, 귀엽디귀엽다
나. 순하디순하다, 순진하디순진하다
다. 많디많다, 세디세다, 이르디이르다

(1, 2)는 김창섭(1981), 채현식(2000), 송재목(2003), 송정근(2007) 등에

서 다루었던 자료 중 일부이다. ‘-다’는 시각, 미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1), 감정(2가), 품성(2나), 정도(2다)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의 중첩에서 분석된다. 김창섭(1981)에서는 객관적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V1-다-V2] 합성동사 형성 규칙의 입력부가 된다고 설명했으나 객관적 감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 가운데에도 ‘-다’ 중첩이 성립하지 않는 예들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다.

‘-다’의 분포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것은 ‘-다’ 형용사 중첩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 채현식(2000)의 논의를 보자.

(3) 수용성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단어들.

가. 집단 공통: 푸르디푸른, 가늘디가는, 굵디굵은, 짧디짧은

나. 교사 집단: 늙디늙은, 희디흰, 좋디좋은

다. 대학생 집단: 달디단, 춥디추운, 순하디순한

라. 중학생 집단: 높디높은, 맑디맑은, 세디센

(3)은 ‘-다’ 형용사 중첩어의 성립 여부에 대한 직관이 언어 사용 집단에 따라 다르고, 단어로 수용할 수 있는 경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인 자료이다.¹⁾ ‘-다’를 매개로 한 형용사 중첩이 가능한 단어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다’의 분포를 명확히 진술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린다.

그런데 형태론 연구에서 어떤 형태소의 분포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파생 접사의 경우 그 분포를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하겠다. 따라서 ‘-다’

1) 채현식(2000)에서는 (3)을 단어형성 규칙이 실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논거로 사용하였다. 즉 단어형성 규칙이 실재한다면 어떤 단어의 수용성 여부가 명확히 판별될 것으로 기대되나 ‘-다’를 통한 형용사 중첩은 수용성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의 분포 역시 명확히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에서 언급한 감각, 감정, 품성, 정도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중 일부의 중첩에서 분석된다는 경향성만을 지적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디’ 형용사 중첩 구성이 형태론적 구성인지 통사론적 구성인지에 관한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영근(1989)에서는 ‘차디찬’의 ‘-디’를 강세를 표시하는 단어접속의 연결어미로 분석하여 ‘-디’ 형용사 중첩어를 통사론적 구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차디찬’을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다고 밝혀 형태론적 구성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절충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비해 허웅(1984), 김승곤(1996)에서는 ‘-디’ 형용사 중첩 구성을 통사론적 구성으로 설명하였다.

송재목(2003)에서는 다른 문법적 또는 어휘적 요소가 끼어 들 수 없고(4가), 선행어와 후행어의 개별적 수식이 불가하며(4나), 성립 어휘의 제약이 크다는 점(4다)에서 ‘-디’ 형용사 중첩어가 형태론적 구성임을 밝히고 있다. 김창섭(1981)에서도 ‘-디’를 어미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 (4) 가. *차디도 찬 : 그림고 또 그리운 고향
 나. *크디 너무나 큰 : 그림고도 더욱 그림다
 다. *부지런하디부지런하다, *파랗디파랗다, *높직하디높직하다

본고 역시 ‘크디크다’와 같은 구성이 형태론적 구성(단어)이라면 ‘-디’는 어미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디’를 어미로 보기에는 그 분포 제약이 너무 강할 뿐만 아니라 ‘-디’가 어미라면 다른 구성에서 어미로서의 용법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는 접사로 볼 가능성이 높다.

본고는 ‘-디’는 감각, 감정, 품성, 정도의 의미를 갖는 일부 형용사 중첩과 관련된 성분이고, 통사론적 구성이 아닌 형태론적 구성을 형성하는

접사라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

3. 한국어의 형용사 중첩과 ‘-디-’의 형태·의미론적 기능

‘-디-’가 형태론적인 구성을 형성한다면 ‘-디-’는 접사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디-’는 형용사 중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접사와 차이가 있다. 오히려 한국어 형용사 중첩 과정에서 확인되는 ‘-디-’와 유사한 성분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5) 가. 째짤하다, 씹씹하다, 떨떨하다
 나. 둥글둥글하다, 비뿔비뿔하다, 거칠거칠하다
 다. 길쭉길쭉하다, 넓적넓적하다, 희끗희끗하다

(5)는 송정근(2007, 2009)에서 다루었던 자료 중 일부로 (5가)는 형용사 어간의 중첩형에 ‘-르’와 접사 ‘-하다’가 연쇄된 단어, (5나)는 형용사 어간의 중첩형에 접사 ‘-하다’가 결합된 단어, (5다)는 형용사 어간에 ‘-쪽, -적, -끗(이하 ‘-쪽’ 류)’ 등의 성분이 각각 결합된 이후 접사 ‘-하다’와 결합된 단어이다.

(5나)의 경우, 어간이 모두 ‘르’로 끝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5가)와 같이 어간의 중첩 이후에 ‘르’이 다시 결합한 어형으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둥글둥글’이라는 어간 중첩형에 (5가)와 동일하게 ‘-르’이 다시 결합하여 어간의 ‘르’이 탈락한 것으로 보면 (5가)와 (5나)는 동일한 유형이 된다. (5가, 나)는 형용사 어간이 다른 성분의 도움 없이 바로 연쇄되었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5)에서 분석된 ‘-르’와 ‘-쪽’ 류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해보자. 우선 ‘-르’, ‘-쪽’ 류, ‘-다-’가 관여된 단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6) 가. [[형용사어간+형용사어간+-르]_{어근+하}]형용사어간
 나. [[[형용사어간+ -쪽]_{어근}+[형용사어간+-쪽]_{어근}]_{어근+하}]형용사어간
 다. [[형용사어간 +다-]_{어근+형용사어간}]형용사어간

(6가, 나)의 ‘-르’, ‘-쪽’류는 ‘짹짹, 길쪽’과 같은 이익섭(1975) 식의 어근(단어의 중심부이면서 비자립적이고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단위)을 형성한다.²⁾ ‘-다-’는 (6다)와 같은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양분법적 분석을 지향하는 IC분석에서 ‘크디크(다)’와 같은 예에서 ‘-다-’는 후행성분보다는 선행성분과 관련되는 것을 볼 수 있어 ‘크디+크(다)’로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크디’는 접사로 보거나, 이익섭(1975) 식의 어근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크디’는 어휘적 의미가 강하고, ‘-다-’를 접사로 봤을 때, ‘크디’ 역시 접사라는 설명은 무리가 있으므로 어근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다-’, ‘-르’, ‘-쪽’ 류의 분포와 형성 단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다-’, ‘-르’, ‘-쪽’의 분포 및 형성단위

	선행성분	형성단위	후행성분
-다-	형용사 어간	어근	형용사 어간
-르	형용사 어간 중첩형	어근	접사 -하
-쪽	형용사 어간	어근	접사 -하 / 어근

2) 송정근(2009)에서는 이들을 고유어 복합어근이라고 명명하여, ‘깨끗(하다), 비실, 풍덩’과 같은 고유어 단일어근, ‘저돌(猪突), 간편(簡便), 가능(可能)’ 등과 같은 한자어 복합어근, ‘초(草), 목(木)’ 등과 같은 한자어 단일어근 등과 구분하였다.

‘-다’, ‘-르’, ‘-쭈’ 류는 선·후행 성분은 이질적이거나 이들을 통해 형성된 단위가 모두 어근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³⁾ 그러나 ‘-르, -쭈, -다’ 등의 기능이나 이들이 형성하는 어근이 완전히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첫째 ‘-르, -쭈’ 류를 통해 형성된 어근은 접사 ‘-하’와의 결합을 통해 단어로 기능하는 데 비해, ‘-다’는 접사를 요구하지 하고 중첩을 통해 바로 형용사 어간을 형성한다. 둘째, ‘-르’은 이미 중첩된 형용사 어간에 결합하여 중첩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쭈’ 류는 중첩할 수 있는 단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다’는 매개하는 성분으로 분석된다. 셋째, 형성된 어근의 지위도 상이하다.

- (8) 가. ¹성격이 둥글둥글. ²기분이 씩씩.
 나. ¹다리가 길쭉길쭉. ²머리가 희끗희끗.

‘-르’과 ‘-쭈’ 류가 형성하는 어근은 상태성을 나타내는 의태어근적 성격을 보이고, (8)과 같이,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성격이 강하여 단어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가 형성하는 ‘크디’와 같은 어근은 자립성이 전혀 없고 단어로 발전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다’, ‘-르’, ‘-쭈’ 류들은 어근을 형성한다는 기능 면에서는 동질적이거나 중첩 과정에서의 역할이 상이하고 이들을 통해 형성된 어근의 지위 면에서 ‘-다’는 ‘-르’나 ‘-쭈’ 류보다 더 의존적인 성격의 어근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르’, ‘-쭈’ 류들은 의미 기능의 측면에서도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다. 우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 형용사 중첩 구성은 정도성 표현에서 가장 강한 상태나 속성을 표현한다. 즉 ‘크디크다’는 큰 정도에 있어 ‘가장 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비해 ‘비뽀비뽀하다, 길쭉길

3) 송정근(2007)에서는 이러한 공통점에 기반하여 이들을 ‘어근형성요소’라고 명명하
 바 있다.

쭉하다’ 등은 이와는 다른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다음은 송정근(2009)의 예문 일부이다.

- (9) 가. 이 종이에 그려진 줄들은 모두 (비뚜네/비뿔비뿔하네).
나. 책상 모서리를 만져보니 마감작업이 잘못되어 표면이 (거치네/거칠하네/거칠거칠하네).
- (10) 가. 봄바람에 새싹들이 파릇파릇하게 돌아나고 있다.
나. 건물들이 높직높직하니 확실히 대도시가 다르긴 다르네요.

(9)에서 ‘비뿔비뿔하다, 거칠거칠하다’는 정도성 표현과 함께 대상 감각의 분포도 표시한다. 즉 대상 감각이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정도성 면에서는 ‘-다’ 중첩보다는 약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10)의 ‘파릇파릇하다, 높직높직하다’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그런데 여기서 형용사 중첩에서 ‘-다’ 자체가 어떤 의미 기능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11) 가. 먹고 (또) 먹으면
나. 오르고 (또) 오르면
다. 읽고 (또) 읽고
- (12) 가. 길고(도) 긴
나. 곱고(도) 고운
다. 가늘고(도) 가는

(11,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어미 ‘-고’를 통한 동사나 형용사의 중첩 구성 즉 통사론적 구성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동사의 반복 구성은 행위의 반복을 의미하는 반면 형용사의 반복 구성은 상태의 강한 정

도성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12)는 ‘-디-’를 매개로 한 형용사 중첩과 비교하여, 의미면에서 강한 정도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형용사 중첩의 정도성 표현이 형용사의 중첩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지, 중간에 개재되는 성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가. Tzeltal: -pikpik ‘touch it lightly repeatedly’(-pik ‘touch it lightly’)

나. Thai: khâw dəən, dəən: paj naan ‘He walked and walked for a long time’(dəən ‘walk’)

다. Ssundanese: guguyon ‘to jest repeatedly’(guyon ‘to jest’)

라. Twi: tẽ’etẽem’ ‘to cry out(repeatedly)’(tẽem’ ‘to cry out (once)’)

마. Ewe: zozo ‘be walking’(zo ‘walk’)

(14) 가. Turkish: dopdolu ‘quite full’(dolu ‘full’)

나. Agta: dádána ‘very old’(dána ‘old’)

다. Thai: díidii ‘to be extremely good’(dii ‘to be good’)

라. Ewe: gégblē ‘be very much spoiled’(gblē ‘be spoiled’)

마. Tagalog: magkabasagbasag ‘get thoroughly broken’(mabasag ‘get broken’)

(13, 14)는 Moravcsik(1978)에서 보인 용언 중첩어들의 양상과 의미이다. 동사와 형용사의 중첩 구성이 갖는 의미 특성은 범언어적으로 유사한데 동사의 중첩은 행위의 반복을 의미하고, 형용사의 중첩은 정도성을 표시한다.

‘-디-’ 형용사 중첩어의 의미에서 ‘-디-’ 자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사론적 형용사의 중첩 구성과 범언어적인 형용사 중첩어의 의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형용사의 중첩 자체만으로도 정도성 표현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 자체가 적극적인 의미 기

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물론 ‘-디-’가 형용사의 중첩을 성립시키는 형태론적 기능을 발휘하므로 결과적으로 정도성 표현에 기여하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형용사 중첩에서 확인되는 ‘-디-’는 형태론적으로 형용사 어간에 결합하여 어근을 형성하고, 의미론적으로 형용사 중첩의 강한 정도성 표현에 적극적인 의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분석만으로는 결국 ‘-디-’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혔다고 하기는 어렵다. 문법적 지위면에서 ‘-디-’가 일반적인 접사와는 차이가 있고, ‘-르, -쭈’와 같은 성분과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특징만으로 ‘-디-’의 본질적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론적으로도 적극적인 의미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는 성분이라면 이들이 왜 형용사 중첩에 등장했는지 궁금증은 여전히 남는다.

여기서 우리는 ‘-디-’가 형용사의 중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성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로 돌아가 ‘-디-’의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중첩의 유형론과 ‘-디-’의 정체

‘-디-’의 정체와 관련하여 송재목(2003)은 기존의 전통적 분석에서 벗어나 중첩이라는 현상에 집중하여 중첩 과정에서 ‘-디-’의 역할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송재목(2003)에서는 중첩을 어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복하는 접사화로 파악하여 ‘크디크다’에서 ‘크디’를 중첩접사로 보고, 여기서 ‘-디-’는 중첩접사에 선명시(prespecified)된 음소선율(phonemic melody)이라고 주장하였다.

- (15) 가. 중첩이란 어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하여 어간의 앞, 뒤, 또는 어간 가운데에 붙이는 일종의 접사화로 여러 언어들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된다(Marantz 1982, 1994, Moravcsik 1978, 1992, Steriade 1988 참조)(송재목 2003: 40).
- 나. 한국어 형용사 반복구성을 형용사의 어간을 복사하여 중첩의 접사로 삼아 이를 어간의 앞에 위치시키는 어두중첩현상으로 본다(송재목 2003: 42).
- 다. ‘동네-방네’는 ‘동네’를 어간으로 해서 이를 복사한 접사의 첫 번째 자음과 모음 골격점들이 각각 /비/과 /ㅏ/로 선명시된 접사 ‘방네’를 첨가해서 형성된 것. (중략) ‘미주알’에는 /고/가, ‘홍청-’에는 /마/가 각각 선명시된다(송재목 2003: 41-42).
- 라. 형용사 반복구성의 ‘-디, -나’를 연결어미가 아니라 형용사 중첩접사에 선명시된 음소선율로 본다. 즉 ‘-디, -나’의 문법적인 성격은 연결어미보다는 ‘동네-방네’의 /바/와 유사하다는 것이다(송재목 2003: 42).

송재목(2003)에서는 중첩을 접사화의 일종으로 보고 ‘크디크다’에서 ‘크디’를 중첩 접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Marantz(1982)의 중첩 개념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Marantz(1982)에서 중첩이 본질적으로 접사 첨가(affixation)라고 본 것은 옳으나 여기서 접사는 ‘크디’와 같은 어형이 아니라 골격 형태소(skeletal morpheme)이다.

- | | | | |
|--------------|--------|-----------|---------|
| (16) 가. bari | ‘body’ | bar-bari | ‘bodys’ |
| 나. takki | ‘leg’ | tak-takki | ‘legs’ |
| 다. ulu | ‘head’ | ul-ulu | ‘heads’ |

(16)은 Agta어의 복수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김영석 · 이상억(199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언어에서 복수 형태소를 ‘bar-, tak-, ul-’처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CV 골격인 CVC-, VC-를 통합한 CVC-가 이 언어

의 복수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하나의 골격의 첨가로 복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Marantz(1982)는 이 골격 역시 하나의 접사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반영하여 송재목(2003)의 주장을 수정하면 ‘-다’는 중첩을 이루는 골격 형태소에 선명시된 성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5다, 라)의 설명에서도 의문점이 남아 있는데, ‘동네-방네, 미주알-고주알’과 달리 ‘-다’는 ‘크’라는 1음절의 중첩에 추가적으로 첨가된 성분이라는 것이다. 즉 ‘동네’라는 2음절을 중첩하는 과정에서 골격 일부가 선명시 되었다는 설명은 ‘미주알-고주알, 알뜰-살뜰’ 등의 다른 한국어의 중첩어들을 통해 지지를 받을 수 있으나, ‘크’라는 1음절이 완전 중첩되는 과정에서 ‘-다’는 추가되는 성분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예들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7) 가. 두동실, 푸드득, 아사삭

나. 따르르릉, 데구르르르, 반지르르르

한국어의 중첩에서 어기(base)와 중첩되는 요소(이하 중첩소, reduplicant)의 음절수를 비교해 보면, 완전 중첩은 물론, 대부분의 부분 중첩에서 음절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실-두동실’을 비교해 보면 어기인 ‘동’과 중첩소인 ‘두’의 음절수는 1음절로 동일하다. 이는 ‘드-득(푸드득-푸드득)’, ‘사-삭(아사삭-아사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음절의 확대는 (17나)와 같은 일부 중첩의 예에서만 확인되는데 이 경우에도 어기와 중첩소 사이에 모종의 음운론적 관련성이 포착된다. 즉 ‘따릉-따르릉-따르르릉’의 관계에서 중첩소인 ‘르’는 어기인 ‘릉’과 유사한 음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음소 복사(copy)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한국어의 중첩 양상을 고려할 때 ‘-다.’ 형용사 중첩은 형용사 어간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어기(크-)보다 중첩소(크디)의 음절이 늘어났다는 점, 늘어난 음절인 ‘-다.’가 어기와 음운론적으로 관련성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하겠다.

이러한 특이성과 관련하여 중첩과 관련된 범언어적 연구 가운데 연결 형태(linker morph)와 운율 겹침(melodic overwriting) 현상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 (18) 가. Khasi: iaid-ši-iaid ‘to go on walking’. leh-ši-leh ‘keep repeating’,
 kren-ši-kren ‘keep talking’(Abbi 1991)
 나. Tamil: o-e-onnu ‘only one’, na:l-e-na:lu ‘only four’(Abbi 1991)
 다. Jaqaru: t‘usqi-y-t‘usqi ‘very like smoke’
 t‘usqi-ch-t‘usqi ‘to be causing a lot of dust’(Hardman 2000)

(18)은 Inkelas and Zoll(2005:36-37)에서 제시하였던, 연결 형태(linker morph)의 예이다. (18가) Khas리어에서는 ‘-ši-’가 동사의 중첩을 이루어 반복적인 동작을 표시하고, (18나) Tamil어에서 ‘-e-’는 수사와 결합하여 ‘오직’(only) 그 수라는 정보를 표시한다. Jaqaru어에서는 ‘먼지’(dust)를 뜻하는 ‘t‘usqi’가 반모음 y를 매개로 하여 중첩을 이루어 강한 정도성의 형용사를 형성하거나, 마찰음 ‘-ch-’를 매개로 하여 중첩된 형태로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동사가 형성된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 이상의 중첩 구성을 갖는 많은 언어에서 각각의 중첩 구성에 대해 서로 다른 연결 형태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18다)에서 반모음 ‘-y-’와 마찰음 ‘-ch-’가 대표적인 예이고, Arrernte어에서는 빈도를 나타내는 중첩에는 ‘-ep-’을 사용하는 반면, 중첩이 감축(attenuative)을 의미할 경우에는 ‘-elp-’를 사용한다.

Inkelas and Zoll(2005: 36-37)에서는 범언어적으로 연결 형태는 의미론

적으로 비어(empty) 있으며, 그 형태를 그 언어 지식에 기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일종의 중첩 부산물(concomitant)로 보았다. 또한 단어 구조에 있어서 연결 형태는 [iaid-ši-iaid]와 같은 삼분지적 단어 구조를 보이는 것인지, [[iaid-ši]-iaid]의 구조를 보이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범언어적 중첩 양상에 기반하여 ‘-다’를 연결 형태로 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분석에서 ‘[[크디]크(다)]’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크]-[디]-[크]]와 같은 삼분지적 구조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의미론적으로 ‘-다’의 적극적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다’라는 형태를 우리말 언어 지식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은 ‘-다’를 연결 형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중첩에서 어기와 중첩소 사이에 나타나는 연결 형태가 ‘-다’ 외에 ‘-나(머나멀다)’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 사이의 체계적인 차이를 감지할 수 없는 점은 연결 형태의 일반적인 양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한국어의 다른 중첩현상과 다른 ‘-다’의 특수성을 여전히 설명하지 못 한다는 단점도 있다.

‘-다’와 관련된 범언어적 현상으로 운율 겹침(melodic overwriting) 현상도 검토할 만하다. Inkelas and Zoll(2005:42-43)에서 운율 겹침(Melodic Overwriting) 현상은 영어의 Yiddish-English나 fancy-shmancy와 같은 단어에서 보듯이, 중첩소의 일부에 어기의 표면형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McCarthy and Prince 1986, Alderete et al. 1999 재인용). Inkelas and Zoll(2005: 42-43)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19) 가. Turkish: kitap-mitap ‘books and the like’
 나. Armenian: pətuɣ-mətuɣ ‘fruit and stuff’
 다. Abkhaz: gaʒák-maʒák ‘fool and the like’
 라. Kolami: kota-gita ‘bring it if you want to’

- (20) 가. cá.phê → cá.phê cá.phiêc ‘coffee and the like’
 나. câu.lac.bô → câu.lac.bô câu.lac.biêc ‘clubs and the like’

(19)에서는 여러 언어에서 어두(onset)에서의 음소 대치를 확인할 수 있고, (20)의 베트남어에서는 어말(coda)에서 ‘iêc’가 어기의 어말을 대신함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추가되는 성분은 중첩소의 일부로 분석된다. (19가)에서 ‘m-’은 중첩소 ‘mitap’의 일부이고, (28가)의 ‘iêc’ 역시 ‘cá.phiêc’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는 연결 형태가 어기나 중첩소 중 어느 것과 관련되는 것인지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 하겠다.

Inkelas and Zoll(2005)에서는 (19)의 ‘m-, g-’나 (20)의 ‘-iêc’와 같은 성분이 어기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지만, 연결 형태와 같이 의미론적으로는 공형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운율 겹침의 경우, 음절수와 같은 운율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점이 연결 형태와 구별되는 차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20)에서 ‘iêc’가 ‘ê’를 대치한 것은 어기의 음절수인 이음절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Bantu어군의 중첩에서도 음절수 문제가 관여되는데, Ndebele어는 어기의 음절수에 따라 ‘-a’와 ‘-a-yi’가 붙어 중첩소를 이음절로 만들어 준다고 한다(Downing 1999 재인용).

범언어적 현상을 그대로 한국어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위에서 검토한 언어 현상에 비추어 한국어 형용사 중첩의 ‘-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범언어적 현상에 비추어 ‘-디’는 연결 형태로 볼 가능성도 있고, 운율 겹침 현상에서 어기의 일부를 대치하는 성분으로 볼 가능성이 모두 있겠으나 본고는 후자로 보았을 때 한국어 중첩에서 ‘-디’의 특이성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⁴⁾

4) (21가)는 ‘http://cafe.naver.com/ratholic.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355&’에서 (21나)는 ‘[http://cafe.naver.com/85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http://cafe.naver.com/85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355&)

- (21) 가. 길다 길다 이렇게 긴 다리는 참 봐요.
나. 크다 크다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까.

(21)에서 보듯 통사론적인 형용사 중첩 구성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크다 크다’와 같은 통사 구성과 ‘크디크다’의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다. ‘크다 크다’가 가능하다면 ‘크다’의 중첩형이 단어로 굳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한 셈인데, ‘크디크다’ 역시 ‘크다’의 중첩형의 일종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즉 ‘크디크다’가 ‘크다’의 중첩으로 형성된 운율 접침 현상으로 보고, 어미 ‘-다’가 ‘-디’로 대체되는 구조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디’는 형용사 어간의 중첩을 이어주는 성분이 아니라 형용사 기본형 전체의 중첩소 일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디’를 종결어미 ‘-다’를 대체한 성분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디’의 특이성이 해소된다.

우선 ‘-디’ 형용사 중첩어가 중첩 과정에서 음절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음절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용사 어간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디’가 들어간 것으로 보면 ‘-디’ 형용사 중첩에서는 음절수가 1음절 늘어나는 중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중첩어들 가운데 ‘따르르르릉’ 등과 같은 유사한 음절의 중첩을 보이는 극히 일부의 부분중첩어를 제외하고 음절수가 늘어난 경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어간의 중첩이 아닌 기본형 전체의 중첩으로 볼 경우, ‘-디’ 형용사 중첩어는 동일음절수의 반복이라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중첩 양상과 동질적인 것이 된다.

또한 형용사 중첩에 왜 ‘-디’가 쓰이는지를 다른 중첩어와 동일한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어의 중첩에서는 ‘울긁불긁, 싱숭생숭’ 등과 같이 자음이나 모음이 변화를 겪은 어형들이 많은데 ‘-디’가

‘-다’에서 모음의 변개를 겪은 어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와 ‘-디’는 ‘아’와 ‘이’의 교체인데, 이러한 모음 교체는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지만 ‘짜그락거리다’의 ‘짜그락’이 중첩된 ‘짜그락짜그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머나먼 조국’에서와 같이 ‘-디’와 유사하게 형용사 중첩에서 확인되는 ‘-나’ 역시 ‘-다’에서 자음이 변한 성분으로 설명할 가능성도 높아진다.⁵⁾

이러한 특수성 해소의 문제와 더불어, 적극적인 의미 기능을 갖지 못하는 ‘-디’는 Inkelas and Zoll(2005)식의 공형태로 볼 수 있고, ‘-디’ 형용사 중첩어가 어기의 음절수와 항상 동일한 음절수를 갖는 중첩소를 갖는다는 점도 ‘-디’ 형용사 중첩 현상을 운율 검침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분석적 방법으로 ‘-디’의 정체를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선행 성분이나 후행 성분의 관계 혹은 ‘크디’나 ‘-디’의 문법적 역할이나 지위를 밝히는 것으로는 ‘-디’의 본질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한 것일 듯싶다. 이는 ‘동네방네’와 같은 단어에서 ‘방네’의 문법적 지위를 밝히는 것으로 ‘동네방네’의 형성이나 ‘방-’의 정체를 밝힐 수 없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5. 결론

본고는 형용사 중첩과 관련된 ‘-디’의 형태론적, 의미론적 기능을 검

5) 형용사 중첩에서 확인되는 ‘-나’는 ‘-다’보다 그 분포가 더욱 제약적이어서 명확한 설명을 하기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기나길다, 머나멀다, 크나크다’ 정도만이 등재되어 있다. ‘길다, 멀다’ 등과 같이 어간의 ‘ㄹ’은 중첩 과정에서 모두 탈락된다. ‘-디’의 경우 ‘다디달다, 자디잘다’ 등에서는 어간의 ‘ㄹ’은 탈락하지만 ‘길디길다’의 ‘ㄹ’은 유지되어 유음 탈락이 불규칙하다 하겠다.

토하고, 중첩 과정에서 ‘-다.’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는 감각, 감정, 품성, 정도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가운데 일부의 중첩에서 분석되고, 형태론적 구성을 형성하는 성분이다.
2. 형용사 중첩에서 분석되는 ‘-다.’, ‘-르’, ‘-쭈’ 류들은 어근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질적이나, 중첩 과정에서의 역할, 이들을 통해 형성된 어근의 지위 면에서 상이하여 동질적인 성분으로 보기 어렵다. 의미론적으로 ‘-다.’가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중첩어를 형성하는 반면, ‘-르, -쭈’ 등은 감각의 분포나 ‘-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정도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성한다. 특히 ‘-다.’는 형용사 중첩의 강한 정도성 표현에 기여하지만 용언의 중첩만으로 정도성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 자체가 적극적인 의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기존의 분석적 방법만으로는 ‘-다.’의 정체를 밝히기 어려우므로 연결 형태와 운율 겹침 현상과 같은 중첩에 대한 유형론적 성과를 참고하여 ‘-다.’를 설명할 수 있다. ‘-다.’를 연결 형태로 볼 수도 있으나, 중첩 과정에서 음절수가 잘 늘어나지 않는 한국어 중첩의 보편성에 잘 부합하지 않고, 늘어난 음절과 어기의 관련성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해 운율 겹침 현상으로 ‘-다.’ 형용사 중첩을 설명하면, 동일한 음절수가 중첩된 셈이 되고, 어미 ‘-다’가 모음교체를 통해 ‘-다.’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음절수가 반복되고, 자음이나 모음 교체가 잘 일어나는 한국어 중첩의

일반론에 잘 부합한다. 또한 ‘-다.’와 유사한 성분인 ‘-나.’ 역시 ‘-다.’가 자음 교체를 겪은 어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다.’ 형용사 중첩을 운율 꺾침 현상으로 보고, ‘-다.’는 용언의 중첩 과정에서 어미 ‘다’가 모음 교체를 통해 나타난 성분으로 보고자 하였다. ‘-나.’나 ‘-다.’가 종결어미 ‘-다.’에서 모음이나 자음 변화를 겪은 어형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논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설명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다., -나.’가 ‘-다.’의 내적변화형으로 볼 수 있는 언어 유형론적 근거를 찾으려 했고, 그랬을 때 문법 기술상의 장점, 보편적인 한국어 중첩 양상과의 부합성 등을 부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근거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가 ‘디’나 ‘나’로 교체되는 ‘ㄷ~ㄴ’의 모음교체, ‘ㄷ~ㄴ’의 자음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교체라는 문제나 ‘-다.’ 형용사 중첩어들이 ‘쓰디쓴 약’에서와 같이 주로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한 어형으로 쓰이는 이유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유형론적으로 ‘-다.’를 연결 형태로 볼 가능성과 그러한 설명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 출판부.
- 김영석·이상억(1998), 『현대형태론』, 학연사.
- 김창섭(1981), 『현대국어의 복합동사 연구』, 국어연구 47.
- 송재목(2003), 「형용사 반복구성」, 『국어학』 42.
- 송정근(2007), 『현대국어 감각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 국문과 박사논문.
- 송정근(2009), 「감각표현의 형태론적 절차와 그 의미 기능」, 『정신문화연구』 32-3.
- 송정근(2010), 「중첩의 두 유형」, 『한국어 의미학』 33.
- 시정근(1998), 『수정판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한국문화사.
- 이익섭(1982), 「현대국어의 반복복합어의 구조」, 『국어학 연구』(백영 정병욱 선생 환갑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 채완(1986), 『국어 어순의 연구』(국어학 총서 10), 태학사.
- 채현식(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 국문과 박사논문.
- Downing, Laura(1999), “Morphological constraints on Bantu reduplication”, *Linguistic Analysis* 29.
- Marantz, Alec(1982), “Re reduplication”, *Linguistic Inquiry* 13.
- Moravcsik, Edith(1978), “Reduplicative constructions”, Joseph Greenberg ed., *Universal of Human Language*, Vol. 3: Word Structur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Reprinted in Frances Katamba eds.(2004), *Morphology critical concepts*, vol. II, Routledge.]
- Inkelas, Sharon(2008), “The dual theory of reduplication”, *Linguistics* 46-2.
- Inkelas, Sharon and Zoll, Cheryl(2005), *Redupl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11년 11월 1일

심사 완료일: 2011년 11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24일

ABSTRACT

On ‘-ti’ in Korean Adjective Reduplication

Song, Jung Ke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i’ which is analyzed in Korean adjectives reduplication. ‘-ti’ has similarities with some root-formatives like ‘-r, -chuk’ in terms of making a new root, which means that ‘-ti’ is a kind of affix in morphological construction. But considering the role in the processes of reduplication and the status of the roots which are made by ‘-ti, -r, -chuk’, ‘-ti’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addition, the fact that ‘-ti’ makes the intensive adjectives in semantic approaches distinguishes ‘-ti’ from ‘-r, -chuk’ which stand for the distribution in sensorial expression. ‘-ti’ has no special meaning in Korean reduplicated adjectives in that the reduplication of the adjective itself is enough to express the intensive sensorial scale. In typological approaches, ‘-ti’ can be classified by linker morphs or constituents in melodic overwriting. The general pattern in Korean reduplication indicates that ‘-ti’ is a part of reduplicat in adjective reduplication, in that the syllable number of the base is usually the same as that of reduplicant. Especially the explanation that ‘-ti’ is changed from the Korean ending ‘-ta’ by vowel change is reasonable in that vowel or consonant change is common in Korean reduplication. In

addition ‘-na’ which is very similar to ‘-ti’ can be explained by the same process. Namely ‘-na’ is also made by the consonant change from the ending ‘-ta’.